2010. 3
March
| 광 | 학 | 단 | 신 |

한국광학기기협회 소식

협회 회장사 및 임원사 초청, 신년 교류회 개최

한국광학기기협회 박상진 회장 주재 하에 임원사 대표들을 초청하여 지난 2월 18일 강남 소재 한미리에서 신년 교류회를 가졌다.

새해 들어 첫 모임을 가진 임원사 대표들은 덕담과 함께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의 한국선수들 금메달 소식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나갔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올 한해 전반적인 협회 운영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교류와 함께 총회 및 이사회 일정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박상진 회장은 "올해에도 여러 가지 난제가 있겠지만 협회가 목표를 명확히 정하고 적극 추진한다면 큰 발전을 거둘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일협력사업과 4월에 있을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 준비에도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확정된 협회의 올해 제23차 정기총회 및 이사회는 3월17일이며, 오전 11시 팔레스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자리에는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삼성디지털이미징 박상진 사장을 비롯하여 이오시스템 이원승 회장, 한광옵토 노원복 회장, 이오테크닉스 성규동 사장, 한국전광 채진석 사장, 해성옵틱스 이을성 사장, 부원광학 박형기 사장, 산주 김기철 사장, 차바이오&디오스텍 박일 사장, 캐리마 이병극 사장, 신도리코 박종경 부장 등 13개사 대표 및 총괄 책임자가 참석했으며, 협회 우태주 상근부회장 및 협회 직원들이 함께 했다.

▶ 한국광학기기협회 박상진 회장 주재 하에 임원사 대표들을 초청하여 지난 2월 18일 강남 소재 한미리에서 신년 교류회를 가졌다.

▶ 캐리마의 이병극 사장이 광학/사진/영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 클러스터 타워' 추진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협회를 통해 수요조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회원사 동정

이달의 신규회원사-정회원(1개 사)

아이오솔루션(주)

- 대표 : 양국현
- 전화 : (063)857-3101
- 팩스 : (063)857-3102
- 주소 : 전북 익산시 창인동 2가 한일오피스텔 509호
- 홈페이지 : www.iosolution.co.kr
- 주요 품목 : 광학기기

삼성디지털이미징(주)
삼성전자와 합병 결정

삼성디지털이미징(대표·박상진)은 지난 2월 23일 경기도 수원시 라마다 프라자호텔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삼성전자와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이날 삼성디지털이미징은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와 합병 승인 △2009년도 재무재표 승인 △사외이사 보수 동의안 등 3개 안건을 결의했다. 승인 결의에 따라 삼성디지털이미징은 오는 4월 1일 삼성전자에 흡수된다. 합병 방식은 삼성디지털이미징 주주에 삼성전자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합병 비율은 삼성전자 1대 삼성디지털이미징 0.0577663이다. 삼성이미징은 4월 1일부터 삼성전자 DMC사업 부문의 디지털이미징사업부로 편입돼 카메라 · 캠코더 · 렌즈 등 디지털이미징 관련 사업을 담당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합병을 계기로 카메라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이미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박상진 사장은 2012년 매출 5조원을 달성하고, 국내 점유율을 50% 이상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에스엔유프리시젼(주)
중국서 아몰레드 장비 수주

태양광 및 디스플레이 장비기업 에스엔유프리시젼(대표·박희재)이 중국 루일리안(Xi'an Ruilian Modern Electronic Chemeicals)과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장비를 25억원에 공급키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스엔유 관계자는 "루일리안에 연구개발(R&D)에 쓰일 AMOLED장비를 공급키로 했다"며 "최근 대만 AU 옵트로닉스(AUO)로 부터 AMOLED 장비를 수주한 데 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스엔유프리시젼은 업계 최초로 5세대 AMOLED 증착장비 개발에 성공한데 이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국책과제로 5.5세대 AMOLED 증착장비 개발도 진행하는 등 AMOLED장비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아몰레드로도 불리는 AMOLED는 광원장치(BLU)로 빛을 내는 LCD와 달리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디스플레이다. LCD보다 응답속도가 1000배 이상 빨라 잔상 없이 자연색을 재현할 수 있고 상하좌우로 보는 각도에 따라 화면이 왜곡되지 않는다.

에스엔유프리시젼(주)
광학장치 관련 특허 취득

에스엔유프리시젼(대표 · 박희재)이 지난 2월 9일 광학장치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는 대상물을 광원에 의해 발생한 투과광 및 반사광을 이용하

한국후지제록스(주)
'컬러월드 2010' 개최

한국후지제록스는(대표·정광은)는 지난 1월 19일, 대치동 복합문화센터 크링(Kring)에서 컬러를 통한 사무환경의 변화를 소개하는 '컬러월드 2010(ColorWorld 2010)'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후지제록스가 컬러 문서의 사용 확산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보다 즐겁고 생기 넘치는 사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컬러월드 2010'은 '직장인의 희로애락'이라는 주제 아래 컬러를 통한 사무 환경의 변화를 고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5가지 테마의 체험존과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에코 존(Eco Zone), 보안 존(Security Zone), TCO 존 등으로 구성된 5가지 테마의 체험존에서는 한국후지제록스의 신제품과 함께 기업의 문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비용절감, 친환경, 보안 등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날 발표된 신제품은 컬러문서의 대중화를 주도할 컬러 디지털복합기 '도큐센터-IV C2260'로 경제적인 가격에 동급 모델 대비 최소 사이즈로 중소규모의 사업장에 최적화된 모델이다. 이와 함께, 한국후지제록스는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오피스 솔루션을 제안했다. 세미나의 주제는 최근 기업시장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TCO 절감, MPS, 문서보안, 1:1 마케팅 등 다섯 가지로서 참가자들은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들을 수 있었다. 행사 참가자들을 위해 캐리커처 이벤트, 기부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었으며, 참가 사전등록을 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했다.

▶ 이날 발표된 컬러 디지털복합기 '도큐센터-IV C2260'

여 검사하는 광학장치 및 이를 이용한 광학장치에 관한 것으로 LCD 검사장비에 활용될 예정이다.

(주)이오테크닉스
127억 규모 반도체 장비 공급계약

이오테크닉스(대표·성규동)는 대만 반도체 회사 SPIL(Siliconware Precision Industries Co.,Ltd)과 레이저 웨이퍼 그루빙 장비 등 반도체 장비 공급계약을 127억7821만원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금액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12.8%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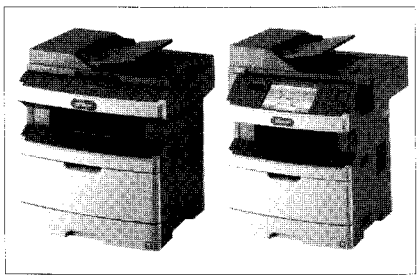
재영솔루텍(주)
자동차 후방카메라 렌즈모듈 본격 개발

종합엔지니어링업체인 재영솔루텍(대표·김학권)이 자동차용 후방카메라 렌즈모듈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재영솔루텍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용 후방카메라 렌즈모듈 개발을 통해 나노광학사업부뿐 아니라 자동차사업부의 매출증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광학사업부의 영역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기존에 휴대폰용 렌즈모듈을 개발해왔으며, 특히 비구면 글라스렌즈를 자체 생산하면서 이 분야에서 삼성테크윈과 더불어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해 왔다.

광학신상품

(주)신도리코
A4 복합기 3종 출시

신도리코(대표 · 우석형)가 지난 1월 12일 A4 흑백 복합기 3종을 출시하고 A4 출력기기 풀 라인업을 가동했다. 신제품 3종은 복사, 출력, 팩스, 컬러 스캔을 기본 장착한 고성능 고해상도 복합기로서 콤팩트한 디자인과 친환경 설계가 장점이다. 신제품 MF 2300/2350/2400은 복사, 프린트, 팩스, 스캔 기능이 장착된 흑백 복합기다. 사진 및 컬러 문서를 원본 이미지 그대로 스캔 파일로 만들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속도가 분당 28매/ 33매/ 38매로 빠르고 Xenon Instant On-Lamp 방식을 채택해 복사 및 스캔 대기시간이 대폭 개선됐다. 또한 양면출력을 기본으로 지원하고 15000매 대용량 토너를 채택하여 환경물질을 절감했을뿐 아니라 유지비용도 낮췄다. 이밖에 네트워크가 지원되어 사무실에서 여러명이 같이 쓰기 편하고 50매 자동원고 이송장치가 장착되어 대용량 문서도 간편하게 복사, 출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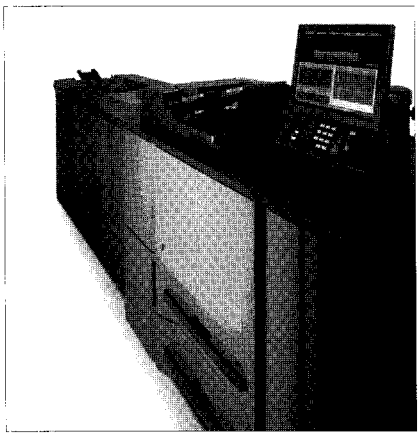


▶ 신도리코의 A4 흑백 복합기 신제품

(주)신도리코
디지털 프로덕션 프린터 출시

신도리코(대표 · 우석형)는 지난 1월 20일 서울 본사에서 프린터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디지털 흑백 고속 프로덕션 프린터 'PRO 1200/1051'을 선보였다. 분당 120매/105매 출력을 지원하는 흑백 디지털 프로덕션 프린터 PRO 1200/1051은 리얼 1,200dpi 해상도(1,200x1,200dpi)를 지원하는 고품질 인쇄로 가는 선과 작은 글꼴은 또렷하게, 그림이나 사진은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상업인쇄 시장의 니즈를 위해 설계된 PRO 1200은 40g/㎡부터 350g/㎡까지 다양한 두께의 급지가 가능하고, 용지 종류도 일반 용지, 옵셋 인쇄용지는 물론 코팅 용지에서도 인쇄가 가능하다. 급지 시스템은 Air-suction 시스템을 채택해 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특히 코팅 용지 급지는 더욱 안정적이다. 21종의 망점 구현을 통해 옵셋 품질을 완벽히 구현했고 선수도 최대 300LPI까지 조정이 가능해 상업인쇄에 적합하다. 또한 다재다능한 인라인 후가공 기기를 장착해 간지삽입, 접지, 스테이플, 중철제본, 무선제본, 멀티홀 펀치의 인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PRO 1051은 속도를 낮춘 모델로 경제성을 추구한 고객에게 제안될 예정이다.

디지털프린팅 시스템으로 상업인쇄 영역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신도리코는 지난 2007년 코닥과 제휴를 맺고 코닥의 대형 컬러 디지털인쇄기 넥스프레스(NexPress)와 흑백 디지털인쇄기 디지마스터(Digimaster)를 발매한 이래, 단 기간 내에 시장에서 강자의 위치를 확고히 했으며, 코니카미놀타와의 제휴를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충실한 제품 라인업을 완성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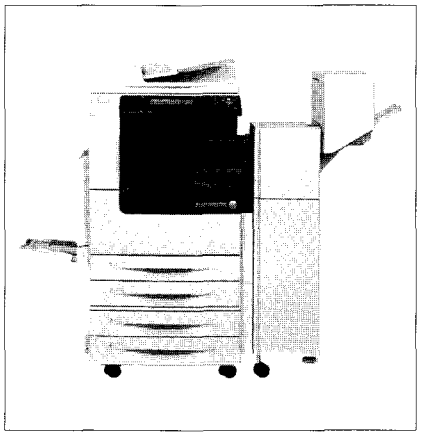
▶ 신도리코의 디지털 흑백 고속 프로덕션 프린터 PRO 1200

한국후지제록스(주)
보급형 컬러 디지털 복합기 출시

한국후지제록스(대표 · 정광은)가 새로운 컬러 디지털 복합기 '도큐센터-IV C2260'을 선보였다. 도큐센터-IV C2260은 경제적인 가격에 동급 모델 대비 최소 사이즈로 중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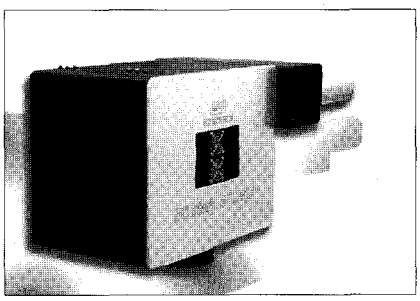
규모의 사업장에 최적화된 모델이다. 페이퍼리스(Paperless) 팩스 기능을 탑재해 원하는 팩스만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고, 17㎝(7인치)의 컬러 조작 패널은 큰 텍스트와 이미지 위주로 디자인됐다. USB 단자가 내장돼 스캔한 문서를 USB로 저장할 수 있다. 옥수수 추출물 소재의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을 사용했고, 토너가 용지에 정착되는 온도가 기존 토너 대비 20도 이상 낮은 EA-에코 토너 기술을 탑재했으며,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한 스캔 기술로 기존 자사 모델 대비 전력 소비를 70%까지 줄였다.

한국후지제록스 마스다 타케시 사장은 "신제품 발표를 시작으로 국내 컬러 문서의 대중화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높여주는 컬러 문서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므로, 올해 컬러 디지털 복합기 시장을 더욱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후지제록에서 선보인 보급형 컬러 디지털 복합기

(주)이오테크닉스
멀티빌 레이저 마커 출시



▶ 이오테크닉스의 멀티빌 레이저 마커

이오테크닉스(대표 · 성규동)가 'NEPCON JAPAN'을 통해 올해는 디스크리트 반도체용 레이저 마커 신제품을 출시, 기존 CO_2 레이저 마커가 지배했던 디스크리트 반도체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신제품은 저가형 Di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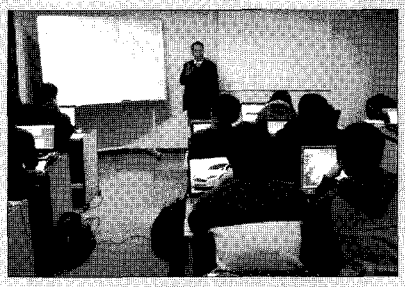
광학이벤트

(주)모던하이테크
고급광학설계 세미나 개최

모던하이테크(대표 · 김도현)에서는 지난 1월 2차례에 걸쳐 광학프로그램을 이용한 고급광학설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강남구 역삼동 소재 J캠퍼스에서 Light Tools를 이용한 LED-BLU설계세미나가 개최됐다. LEDAZ라는 대만 UOT의 디자인하우스 김용석 차장의 강의로 진행된 이 세미나에는 삼성, 엘지 등 국내외 주요 대기업 실무자와 대학교 교수 및 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서 참석한 가운데 LED Engineer에 필요한 이론 및 설계 기법이 핵심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LightTools 기초사용법에서부터 LightTools를 이용한 application Item설계연습까지 이론과 실습을 폭넓게 다뤘다.

이어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세미나에서는 청주대학교 이종웅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CODE V를 이용한 고급 광학설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CODE V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광학산업분야의 결상광학계 설계프로그램으로서, 이날 강의는 고급과정으로 근축광학과 수차이론에 대한 지식이 있고 CODE V 사용경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편, 세미나 일정중 마지막 날에는 3일간 교육받으며 궁금했던 내용이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지며 참석자간의 친목도모를 다질 수 있는 리셉션이 마련되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 모던하이테크의 김도현 사장은 "이번 세미나는 Hands-on 방식의 강연을 통해 보다 자세하고 폭넓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계속해서 광학엔지니어들의 기대에 부흥하도록 각 분야의 요구기술을 취합하여 설계기술 능력 향상에 일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LightTools를 이용한 LED-BLU 설계 세미나 광경



▶ CODE V를 이용한 고급 광학설계 세미나 광경

Pumped Nd:YAG 레이저 마커로 마킹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CO_2 방식과 가격경쟁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이오테크닉스는 자동차 부품 시장을 겨냥한 범용 레이저 마커도 선보였다. 이 장비는 로터리형 지그와 연결해 원형이나 봉 형태의 자재에도 회전과 동시에 마킹이 가능해, 최근 잉크마킹 대신 레이저 마킹으로 전환하는 자동차 시장에 대응할 수 있다.

작년에 인수한 영국 '파워레이즈' 사의 'High Power Laser' 도 최초로 소개했다. 이 장비는 전세계 태양전지 라인에서 이미 그 품질을 검증, 일본 PV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학인포메이션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강행

2010년 기준 온실가스를 2만5000석유환산톤(toe) 이상 배출하거나 원유를 2300톤 이상 사용하는 회사나 사업장은 가스 감축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업체는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 방식으로 오는 9월말까지 기후변화에너지센터를 통해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후변화에너지센터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게 되며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지원과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국제연구 및 개도국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정부는 오는 4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온실가스 에너지 다소비 업체는 최근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평균한 값으로 따진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관리업체의 실적보고서와 명세서의 정확성 여부 등을 공동 평가한 후 결과를 매년 6월말까지 기후변화에너지센터를 통해 해당 업체에 통보,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8일까지며 정부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통해 산업계 · 학계 · NGO 등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관계부처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14일 확정할 계획이다.

디카 '성능표시' 과장 못하게 가이드라인 마련돼

디지털카메라 사양 표기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제품 사양을 표기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을 겪어온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조경태 의원실은 렌즈교환식(DSLR) 카메라를 비롯한 디지털 카메라 표시 광고를 표준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4월 임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캐논에서 출시한 DSLR카메라 'EOS 7D' 시야율 문제가 불거지면서 비롯됐다. 시야율은 카메라 뷰 파인더에 피사체가 보이는 범위를 말한다. '100%' 라는 제품 광고와 실제 시야율이 다르다는 점이 일본 카메라 전문 잡지 기사로 알려졌고, EOS 7D를 구입한 사용자가 캐논코리아에 허위 광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캐논코리아는 시야율 측정을 통해 원하는 소비자에 환불을 실시했다.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소비자는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지식경제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디지털카메라 사양 '표시 광고 표준화'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디지털카메라 표시 광고 규정이 미약하다며 업체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시야율을 측정해 성능을 과장 표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규정 강화를 요구했다. 당시 '사전 성능인증 제도' 와 '제품 하자시 성능검사 제도' 를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여줄 것도 요청했다.

KEIT, IT 전략기술 로드맵 발표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있는 3D 영화 '아바타' 를 2015년엔 우리 기술로 극장이 아닌 가정에 설치된 TV로 즐길 수 있게 된다. 또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와 에너지퓨전 반도체 등 차세대 IT 제품의 현실화가 기대된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이동통신 등 14개 분야의 '정보기술(IT) 전략기술 로드맵 2015' 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시스템 부문을 포함한 반도체 분야에선 2015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내년 자동차용 퓨전 반도체에 이어 2015년 에너지 퓨전 반도체를 개발해내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선 패널 · 부품 · 소재 · 장비산업의 동반 일류화를 목표로 잡았으며, 발광다이오드(LED)는 2013년까지 세계 3강 반열에 오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동통신 분야에선 내년까지 4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을 마련하고, 2015년까지 4세대 이동통신 상용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방통융합 디지털방송서비스 분야에선 2015년 세계 시장 15% 점유를 위해 다시점 3D TV와 8K급 UHDTV를 개발하는 것으로 목표로 제시했다. 또 차세대 로봇 분야에선 2015년까지 의료서비스 로봇을 개발하기로 했다.

IT 기술진흥에 9881억 투입

올해 IT 분야의 R&D, 인력양성, 표

준화, 기반조성 등의 진흥을 위해 9881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IT융합 기술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 지식경제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2010년도 정보통신 기술진흥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올해 IT기술진흥을 위해 총 988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68억원(6.1%) 증액된 것이다. 특히, IT융합, 미래원천기술, 녹색성장 등 미래신산업 창출을 위한 R&D 부문은 지난해 대비 526억원(7.7%) 증가했다. 지경부는 올해 △미래원천기술개발 투자 강화 △10대 IT융합 전략산업 맞춤형 육성 △IT융합, 감성IT 등 신수요에 대응한 IT인력양성 △세계시장 선점 가능분야 표준개발지원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의 IT를 통한 창의 · 혁신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IT산업원천 R&D에 7009억원이 지원된다. 세부적으로는 IT산업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미래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비중을 작년 41%(2331억원)에서 올해 43%(2,481억원)로 확대한다. 또 2013년까지 3600억원 규모인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출연연구소의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지원을 위해 'ETRI연구개발지원사업'도 1125억원이 투자된다. 또한 녹색 R&D에 대한 신규투자를 2013년까지 2009년(207억원)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2010년에는 13개 신규과제 234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IT융합의 본격 확산에도 1082억원이 투입된다. IT융합의 파급 효과가 큰 자동차, 조선 등 10대 IT융합 분야 중장기 원천R&D에 2009년 대비 32% 증액된 912억원을 지원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IT융합 신시장개척을 추진하게 된다. IT융합, 감성IT 등 신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IT인력양성을 위해 779억원이 지원되고,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4세대 이동통신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분야의 글로벌 표준전략 추진을 위해 265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또 RFID/USN 클러스터 조성, IT기업에 대한 특허분쟁대응지원 등 IT기업의 R&D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157억원을 지원하는 등 IT인프라 구축과 대형정책과제 개발 등 기반조성에 658억원을 집행한다.

신재생에너지에 5조5000억 투자

신재생에너지 업계가 올해 설비 증설 및 연구개발(R&D)에 3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 투자액을 합치면 5조5000억원에 이른다. 또 업계는 신재생에너지 46억2000만달러어치를 해외에 수출할 계획도 세웠다. 신재생에너지협회는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2010년도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투자, 수출 실적 및 계획'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계획 실현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관련 법안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고, 국산 개발 제품에 대한 초기 시장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출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 실적 확보를 위한 실증단지 건설 △수출금융 지원 확대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품 · 소재 및 장비 국산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010년도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발표에서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수출 산업화의 원년이 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산업 육성 가속화 △수출 산업화 촉진 △선진 인프라 구축의 세 부분으로 나눠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보급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급사업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보급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5461억 투자

지식경제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지자체별로 수립한 2010년도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확정, 5461억원 규모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282억3000만원(60.1%), 지방비가 1996억7000만원(36.6%)이다. 민간자본도 182억원(3.3%)이 포함된다. 부문별로는 인프라에 1022억8000만원, 기술개발에 1445억4000만원, 기업지원사업에 697억1000만원, 기타 기획단 운영 등에 117억원 규모가 지원된다. 지역전략산업 지원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부산(신발), 대구(섬유), 광주(광), 경남(기계)을 시작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행된 대표적인 지역산업 육성 정책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중앙정부 주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던 방식에서 탈피,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지자체가 자체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칸막이식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지자체나 기업 등 정책수혜자가 알기 쉽게 프로그램을 기능 위주로 통폐합해 사업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은 지난해 164개 과제에서 올해 113개로 조정하는 등 31.1%의 과제를 통 · 폐합한다. 기존 5개로 구성된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방식 기준으로 '과제지정형'과 '자유공모형' 2개로 단순화해 지역에서 세부투자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